

[종합·해설]

李정부 새장관 평균 39억원 '재력가'

대부분 수십억 이상 부동산 소유
유인촌 문화 내정자 140억원 신고

이명박 정부의 초대 장관 내정자 대부분이 상당한 재산가인 걸로 드러났다. 대부분 10억원 이상을 신고했으며 40억원대 3명, 50억원대 2명에 100억원 이상을 신고한 사람도 1명 있었다.

21일 국무위원 후보자 15명 가운데 원세훈 행정자치부 장관 내정자를 제외한 14명의 재산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고 부자는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 내정자. 본인과 부인, 두 아들 등의 재산을 합쳐 140억2천만원을 신고했다. 유 내정자의 경우 아파트 3채(강남 압구정동, 종로구 수송동), 연립주택 1채(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경기도 여주 입암 및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제주시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57억3천100만원), 김경한 법무부 장

관 내정자(57억1천800만원), 박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49억5천900만원), 이영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40억3천만원) 등 기록이 제출된 11명 중 절반에 가까운 5명이 4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는 27억1천600만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는 24억7천만원,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는 15억3천만원, 정종환 건설해양부 장관 내정자는 15억2천만원,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11억4천800만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상당액수의 예금과 유기증권을 보유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유인촌 내정자는 본인 명의의 예금 7억원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 55억원을 합쳐 60억원이 넘는 예금을 신고했고, 이윤호 내정자는 35억원의 금융자산

■ 새정부 장관 후보자 재산 내역

부처	후보	재산총액	주요 재산내역
문화체육	유인촌	140억1979만	서울 청담동 등 토지 6건, 서울 암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주택·건물 4건, 예금 및 유기증권·골프회원권 3건
기획부	김성이	11억4841만	서울 지상동 기산빌리트 등 주택, 건물 2건, 경기도 가평군 대지 등 토지 4건, 예금
지식경제부	이윤호	57억3137만	서울 여의도 롯데캐슬 등 주택 4건, 예금 및 유기증권, 골프회원권 3건
법무부	김경한	57억1800만	서울 몽촌 목동사거리아파트, 서울 시내구 시내동 부지크리오오피스텔, 서울 미포구 상수동 월드메리어트 호텔, 부산 거제동 월드메리어트 101호텔 등 주택 2건, 경기도 해남군 현신면, 해남군 송지면 2건, 예금, 차량 및 유기증권, 물류화물 6건, 헬스클럽회원권 1건
환경부	박은경	49억5865만	서울 목동 목동사거리아파트, 서울 종로구 내수동 경희궁의 아침, 강원도 평창군 한알빌리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 등
노동부	이영희	40억3045만	서울 잠실 아시아나수수촌아파트 등 주택 4건, 예금 및 유기증권, 골프 레이크힐스 회원권 등 회원권 3건
식품부	정운천	27억1582만	서울 개포동 주공아파트, 전라 해남군 송지면 등 주택 2건, 경기도 해남군 현신면, 해남군 송지면 2건, 미산면 등 토지 4건, 예금, 유기증권, 차량, 출자지분
외교통상부	유명환	26억1329만	서울 서초동 e-관현세상, 반포동 삼화기문센타 등 주택 2건, 예금 및 유기증권, 골프회원권 1건
교육과학기술부	김도연	15억2900만	서울 불광동 벽돌별관아파트,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웨일리트온 아파트 2건,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단독주택 등 주택 4건,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관리 전담 대지 1건, 토지 2건, 예금 및 유기증권
국토해양부	정종환	15억2252만	경기 신분 모향아파트, 서울 홍대도가, 서울 종로구 내수동 경희궁의 아침, 원미아천기오피스텔, 경희궁의 아침 2단지 등 주택 5건, 충청남도 서천군 문민면 6건, 예금, 유기증권, 주식, 골프회원권 1건

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유인촌 내정자는 11억4천800만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상당액수의 예금과 유기증권을 보유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유인촌 내정자는 본인 명의의 예금 7억원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 55억원을 합쳐 60억원이 넘는 예금을 신고했고, 이윤호 내정자가 본인 명의의 도요타 마

크 II와 장남 명의의 혼다 아쿠리와 신고한 것을 포함, 이윤호 내정자는 배우자가 혼다 어코드, 정종환 내정자의 경우 장남이 푸조 차량을 각각 보유한 것으로 신고하는 등 본인 내지 가족이 외제차량을 보유한 사례도 일부 있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孫·鄭·康 '전략공천' 갈 듯

내달 중순께 지역구·비례대표 출마 선택

통합민주당 공천후보자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손학규 대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강금실 최고위원 등 '빅3'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일단 이들 3명은 23일 마감되는 지역구 공천신청은 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내에서는 이들이 내달 중순께 '전략공천' 형식으로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출마를 선택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당현·당규상 전략공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지만 공천심사위가 총선 전략 차원에서 이들 3명과 협의, 최종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빅 3'가 비례대표보다는 지역구 출마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을 대표하는 '빅 3'가 가급적 수도권에 출마, 당에 불리한 선거 분위기를 바꾸는데 일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박재승 위원장을 비롯한 외부 공신 위원들은 이들 3명의 지역구 출마 쪽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외부 공신위원회도 이와 관련, "현재 생각하는 방향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면서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호남중진 수도권 출마론'에 대해서도 "그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손 대표의 경우 수도권 의원들과 참모들

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의원들은 손 대표가 비례대표 '당선 목표 마지막 순번'을 받고 수도권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유세를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반면 참모들 사이에서는 서울 중구 등 수도권 지역구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는 것

정 전 장관의 경우는 더욱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출마율, 호남 및 수도권 출마, 비례대표 출마 등 많은 소문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한나라당 등의 고소·고발과 관련, 검찰이 소환장을 발부하고 정 전 장관측과 당에서 '정치탄압' 비난이 터져나오면서 그의 불출마 가능성은 낮아진 게 아니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역구에 출마할 경우 서울 종로와 서대문을, 구로를, 전주 덕진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강 최고위원의 경우는 '비례대표 1번' 가능성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강 최고 위원이 최근 정부조직개편 협상 과정에서 강경론을 주도하는 등 당내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과 관련, 지역구 출마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출마 지역구로는 구로를이 많이 거론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이명박 정부엔 광주·전남 없다

민영화·수도권 규제 완화 미래 견인 동력 '먹구름'

④ 혁신·기업도시 비틀

려되고 있다.

여기에는 전남의 미래를 견인할 기업도시 건설 사업도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와 맞물려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정부 혁신 추진과제를 담은 '100일 로드맵'을 작성 이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우선 나주에 건설되는 광주·전남 혁신

도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 방침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핵심인 한전과

자회사도 사설상 포괄적으로 공기업 민

영화 및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며 때문

이다.

민영화가 이뤄진다면 민간기업의 본

사 이전을 정부가 간여할 수 없다는 점

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던 무안의 기업도시 건설은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무안 기업도시 이전을 검토했던 일부 수도권 기업들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며 발을 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해남·영암을 중심으로 한 관광·레저 기업도시 건설 전망도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 이명박 정부가 관광·레저 기업도시 건설과 관련한 별다른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새만금 간척지 개발이 주가 되는 5+2 광역경제권 구성을 내놓으면서 서남권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남 서남권 기업도시 건설 기반이 되는 '낙후지역 발전 특별법' 국회 표류

에서도 한전과 자회사의 나주 혁신도시 이전도 확신할 수 없게 된다.

특히, 한전 및 한국전력거래소, 한전 기공, 한전KDN은 직원만 2천100여 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이들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가 이뤄진다면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껏기기 남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한수위에서는 한전 등에너지 관련 국가 공기업의 민영화는 국가 장기과제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내 시장 상황도 한전 및 한전 자회사의 민영화는 초기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당장 한전 및 자회사의 민영화는 이뤄지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오히려 새만금 간척지 개발이 주가 되는 5+2 광역경제권 구성을 내놓으면서 서남권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남 서남권 기업도시 건설 기반

이 되는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

도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

는 상황이다.

〈끝〉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자유선진당 이회창 예산·홍성 출마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출마에서 선영이 있는 충남 예산·홍성 지역에 출마하게 될 전망이다.

이 총재의 한 측근은 "이 총재가 아직 속 마음을 내비친 적은 없지만, 여러 분들이 아주 강력하게 예산·홍성 출마를 건의해서 그 렇게 결심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근 이 총재가 만난 심대평 대표도 이 총재가 예산·홍성 출마 결심을 굳혔느냐는 질

문에 대해 "현재는 그렇다고 한다"면서 "여기에는 예산·홍성 지역에 출마하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예산·홍성 지역에 출마하게 될 전망이다.